★ 중앙교회 구역 모임(15-08)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 삶 나누기

주기도문으로 끝난 예배

1920년대 승동교회 6대 위임목사였던 그는 저명한 설교자이며 성자풍의 목사였다. 어느 해 주일 예배시간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 김영구 목사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잘 준비되고 조직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랐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전에 없이 더듬거리고 주저주저하더니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였다. 선임장로인 김일선 장로에게 "김 장로님, 오늘은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김 장로와 온 교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 11시 30분 정도에 예배가 마쳐진 것이다. 물론 교인들은 충격 가운데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교인들은 평소 담임목사를 신뢰하던 터였기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하고 목사의 인격에 대해 의심을 품지는 않았다.

교인들이 돌아간 후에 당회원들은 교회 구내에 있던 목사관으로 찾아가 사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물었다. 이에 사모님은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오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나가실 때 제가 전에 없이 목사님의 말에 화가 나서 말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잘못했지요." 사모님은 후회스런 눈빛이었다.

아마 그때 김영구 목사님은 전에 없이 말대답하는 사모님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동시에 화가 난 마음이 가득찬 가운데 강단에 오르게 되었던 것 같았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설교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설교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목사가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나라와 권세와 영광 (본문 / 마태복음 6:9-13, 암송 - 예레미야 33:3)

1.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언문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3.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눔1.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눔2.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눔3.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았습니까?

나눔4.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3. 은혜나누기

1) 누구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2)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3)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4) 2015년을 시작하는 중앙교회의 기도
(1) 나라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2) 몽실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이 즐겁게 배우며 재능을 개발하게 하소서.
(3)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4) 2월 생명운동 캠페인"악플 NO 선플 YES"운동에 좋은 결실이 있게 하소서.
(5)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일본 권윤일·다케다 기쿠코 선교사
100명이 예배드릴 처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꾼들을 세워 주소서.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10-'악플 NO 선플 YES'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